

엘렌 G. 화잇의 대쟁투 시리즈 연구

#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 정

· 2단계 ·  
제자 되기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 재림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Making Adventist Continuum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Spiritual Growing In Christ As The Adventist*

엘렌 G. 화잇의 대쟁투 시리즈 연구



엘렌 G. 화잇의 대쟁투 시리즈 연구

#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오늘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사명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6T, 431).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MH, 135).

이 말씀과 같이, 교인들을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 각 교회마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의 부흥과 사명의 성취는 요원(遙遠)한 일입니다. 그동안 재림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강조는 많이 하였지만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평신도 훈련을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교회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 힘 2015’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재림성도 양육과정 시스템과 교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 방대한 작업을 완성시킨 선교전략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단계의 과정을 13권의 교재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육 교재가 각 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한국의 모든 재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한국연합회장 / 목회부장 김대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마디의 말은 약 160년간 재림교회 기별의 핵심 정신이 되어 왔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 기별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타난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기별의 핵심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시리즈가 이 두 마디의 묘사로 시작하는 것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16). 그분의 본성과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 부조, 33*

그리고 이것은 대쟁투 시리즈의 마지막 획이 되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 쟁투, 678

그날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죄와 슬픔이 사라졌다. 죽음과



질병도 없다.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곧 오신다. 그러나 얼마나 더 남았는가?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총력전이 하나님의 승리로 운명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다. 우주의 그 어떤 힘도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감출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표현을 살펴 보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뽀족뽀족 돌아나는 풀싹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 하는 것이다. - 정로, 10

우리 아버지께서 놀라운 지혜로 역사의 휘장을 걷어주시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모든 남녀와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사랑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살펴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악의 대쟁투는 또한 우리에게 결심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부르심이다.



이것에 대해서 화잇 여사는 이렇게 권면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 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이 투쟁이 인류 역사의 갈피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정신 중의 하나를 나타내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이 대쟁투의 어느 한쪽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로 결정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교육 190

당신은 앞으로 몇 주간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마지막 때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분은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당신이 본향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본 교재는 성도들이 대쟁투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오늘날 각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재의 내용은 화잇 여사가 저술한 5권의 대쟁투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질문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읽고 답을 찾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방대한 양의 대쟁투 시리즈를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각 시대마다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대쟁투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남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

**본 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 소그룹으로 모이기 전에 개인적으로 각 과에 해당하는 성경 내용과 예언의 신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 소그룹 시간에는 미리 읽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함께 답을 찾도록 한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원들이 미리 답을 찾아오도록 할 수도 있다.
- 리더는 답을 알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조원들의 대화가 주제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끈다.
- ‘생각해 볼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함으로써 공부한 내용이 각자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
- 리더는 각 과를 마칠 때마다 조원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대쟁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알려 준다.



우리 모두는 전쟁 중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치열한 선악 간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교재를 통하여 영적 대쟁투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이 준비되길 바란다. 특별히 이 책을 연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역사적 배경 ..... 10

Part 01

죄의 시작

루시퍼, 대기만자 ..... 21

Part 02

죄의 시작

대쟁투가 지구에서 계속됨 - 1 ..... 29

Part 03

죄의 시작

대쟁투가 지구에서 계속됨 - 2 ..... 36

Part 04

죄의 시작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피해가 되기도 함 ..... 43

Part 05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대쟁투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 50

Part 06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대쟁투

예수님께서 삶과 말씀으로 남녀들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며 사탄의 잘못을 증명하심 - 1 ..... 57



Part 07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대쟁투

예수님께서 삶과 말씀으로 남녀들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며 사탄의 잘못을 증명하심 - 2 .....65

Part 08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대쟁투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주간 /  
하지만 우리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주간인가! - 1 ..... 73

Part 09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대쟁투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주간 /  
하지만 우리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주간인가! - 2 ..... 81

Part 10

전쟁이 끝남

초대 교회가 말하는 대쟁투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 .....89

Part 11

전쟁이 끝남

초대교회의 배교 ..... 97

Part 12

전쟁이 끝남

하나님께서 대쟁투를 마치실 때 교회는 마침내  
사탄의 잘못을 증명함 ..... 105

Part 13

전쟁이 끝남

마지막 때 사건들은 대쟁투를 분명하게 보여 주므로 다시는 의심이 고  
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 113



## 역사적 배경

각 시대의 대쟁투 시리즈의 발전 역사는 대단히 흥미롭다. 그것은 거의 화잇 여사의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 화잇 여사의 초기 저서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행되었는가?

화잇 여사는 1844년 12월부터 1915년 초까지 70년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약 2,000번의 계시를 받았다. 이 이상들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기술은 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되었고, 그중 얼마는 수신자들에 의해 출판되었다. 1849년부터 1850년까지 제임스 화잇은 그녀가 기록한 여섯 개의 글을 〈현대 진리(The Present Truth)〉라는 책자에 실었다.

1851년 여름, 64페이지의 소책자가 〈엘렌 G. 화잇의 그리스도인 경험과 계시의 개요(A Sketc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Views of Ellen G. White)〉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었다. 이 첫 번째 소책자는 이미 출간된 그녀의 글들뿐 아니라 출판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그녀가 받은 계시들도 몇 장 포함하고 있었다.

1854년, *경험과 계시(Experience and Views)*에 관한 48페이지에 달하는 보충 자료가 그 이후에 주어진 계시들과 함께 출판되었다. 1882년, 이 두 소책자는 〈초기문집(Early Writings)〉의 앞쪽에 포함되었다. 그 뒤를 이어 〈영적 선물 1권(Spiritual Gifts, volume 1)〉으로도 알려진 219페이지의 〈각 시대의 대쟁투(The Great Controversy)〉가 출판되었다.

1858년 화잇 여사에게 주어진 대쟁투에 관한 이상은 그녀의 수많은 계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장례식을 멈추게 한 이상

1858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화잇 부부는 오하이오 주 볼링 그린 근처에 있는 러벳츠 그로브(Lovett's Grove)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였다. 제임스 화잇은 14일 일요일 오후, 안식일 집회가 있었던 교사 사택에서 장례식을 집례하고 있었다. 화잇 여사는 남편의 설교에 이어 문상객들을 위로하는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이상 증으로 끌어올려 졌는데,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약 2시간 가량 주님은 교회에 꼭 필요한 많은 계시를 그녀에게 보여 주셨다.

## 이상 중에 포괄적인 장면이 보여짐

엘렌 화잇은 이상 중에 하늘에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그녀는 죄와 루시퍼의 타락을 목격하였다. 그 후 그녀는 지구의 창조와 에덴동산에 있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 그 후 연달아 성경 역사의 사건들이 그녀 앞으로 지나갔다. 그녀는 부조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을 보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목격했다. 또 그녀는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모습과 그 후에 나타난 교회의 배교 그리고 종교 암흑 시대의 모습도 보았다.

그 후 그녀는 이상 중에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선 숭고한 사람들이 있었다. 현시대로 이끌려 내려온 그녀는 구름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미래로 인도되었다. 그녀는 천 년기의 장면과 그 후 온 땅이 새롭게 되어 성도들에게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 대쟁투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의 노력

얼마 후 화잇 여사는 이 중요한 이상에 대해 기록하였다.

러벳츠 그로브에서 본 이상 중에, 1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진 각 시대의 대쟁투에 관하여 본 내용의 대부분이 반복되었으며, 나는 그것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탄이 총력을 다하여 나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므로 내가 암흑의 세력과 투쟁하는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과 투쟁하는 동안 천사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 자서, 162

이상을 본 다음 날, 화잇 부부는 집을 향해 출발했다. 기차에서 그들은 최근 경험한 것들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그 이상들을 기록하고 대쟁투에 관련된 부분을 출판할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화잇 여사는 집에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사탄은 자신의 품성과 계락을 드러내는 계시로 인해 몹시 화가 났으며, 그것을 기록하여 출판하려는 계획을 막으려고 결심하였다. 하지만 화잇 부부는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거의 알지 못했다.

미시간 주 배틀크릭으로 가는 도중 잭슨에 도착한 그들은 친구인 데니얼 팔머(Daniel R. Palmer)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녀가 이야기한 대로 그 당시 화잇 여사의 건강 상태는 평소와 같이 양호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내가 팔머 부인과 이야기할 때에 내 혀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을 안 듣고 커진 것 같으며 마비되었다. 이상하게 찬 감각이 나의 심장을 치더니 내 머리를 통과하여 오른쪽 옆구리로 내려갔다. 한동안 나는 의식을 잃었는데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났다. 나는 나의 왼쪽 수족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전혀 쓸 수가 없었다. - 자서, 162



이것이 그녀의 세 번째 중풍 증세라는 것을 깨닫고는 한동안 화잇 여사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없는 듯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녀의 기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중풍의 여파로 인해 심하게 고통 하고 있는 중에 그녀는 자신에게 보여진 대쟁투의 장면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페이지밖에 기록할 수 없었는데, 그러고는 삼 일씩 쉬었다. 일을 계속함에 따라 기력이 증가되었다. 내 머리의 마비증이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았으며, 그 일(영적 선물 1권)의 저술)을 마치기 전에 충격의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 자서 162

1858년 6월에 그 책의 원고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화잇 여사는 팔머 씨의 집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에 대한 빛을 받게 되었다.

1858년 6월에 가진 배틀크릭 집회 때에, 나는 객소에서 사탄이 갑자기 나를 공격한 것은 내가 저술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이 나의 생명을 앗아 가려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파송된 것을 이상 가운데서 보았다. - 자서 163

### 대쟁투 이야기를 출판함

같은 해 9월, <영적 선물>이 -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벌인 대쟁투 - 배포될 준비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219페이지의 이 책은 대쟁투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대쟁투 이야기의 첫 번째 '요약본'은 <영적선물 1권>과 <초기문집> 셋째 부분에서 볼 수 있다.

그다음 해에는 대쟁투의 다양한 국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개관적인

이상이 화잇 여사에게 주어졌다.

해가 갈수록 신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고 더 많은 책들에 대한 필요가 생겼다. 신도들은 그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알려 준 <영적 선물>을 재발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화잇 여사는 이 제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출판된 이래로 그녀는 더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주제들을 좀 더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대쟁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말을 더 확실하게 보여 주는 400페이지가량의 책 4권을 출판할 계획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시리즈에는 *예언의 신(The Spirit of Prophecy)*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책들은 1870년부터 1884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이것이 현재 5권으로 구성된 대쟁투 시리즈의 전신이다.

예언의 신의 4번째 책에는 또한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기간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담고 있다. 이 중요한 주제를 완벽하게 기록해야 하는 부담이 화잇 여사에게 있었으며, 그녀는 1884년 2월 19일 우라야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매일 15~20쪽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11시입니다. 나는 4권을 위한 14쪽의 원고를 기록했으며...

나의 책을 기록하면서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써 내려 하는데 이는 우리 백성들이 이것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내게 건강을 주신다면 다음 달까지 이것을 마칠 것입니다.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사건들을 생각하느라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세 시간, 간혹 다섯 시간 자는 것이 고작입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 깊이 감동되었으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나는 기록해야만 하며,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으며, 나는 백성들을 무관심으로부터 깨우쳐서 그날을 위해 준비시키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물들이 밤낮으로 나의 눈에 어른거립니다. 일시적인 사물들은 나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 3기별, 109, 110

1883년, 다음 해에 출판될 <각 시대의 대쟁투>의 뒷부분을 기록하고 있을 때, 화잇여사는 이상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어떤 치료방법으로도 그녀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집필 사역은 잠시 미루어졌다. 당시 그녀는 매우 위독하였으며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녀의 집인 캘리포니아 힐스버그에서 곧 생을 마감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근처 장막집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녀가 집회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자.

큰 천막 안에 있는 플랫폼 위에 소파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앉아 나의 마지막 작별인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내 얼굴은 죽은 사람의 얼굴 처럼 창백했다.

잠시 동안 간증을 한 후에 나는 윌리에게 내 발로 일어나 그에게 기대어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일어서서 어찌면 장막집회에서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마디의 말을 했을 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의 모든 신경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를 본 사람들은 내 입술과 이마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힐스버그에 사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감격하여 집으로 돌아가 이웃에게 “모든 군중이 보는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나는 왜 모든 사람



이 심지어 발뒤꿈치를 들면서까지 나를 집중해서 바라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했고, 나는 치유되었다. ...남은 장막 집회 기간에 나는 여러 번 말씀을 전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907년 2월 17일

또다시 원수의 공격은 좌절되었고 화잇 여사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마칠 수 있었다.

1884년 가을, 그 책은 배포될 준비가 되었다. 가격은 시리즈의 나머지 3권과 동일하게 1달러로 책정되었다. 문서전도자들을 통해 재림교회 서적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전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각 시대의 대쟁투>는 타 교파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래서 출판인들은 삽화가 첨가된 한 정판을 다시 인쇄하여 1.5달러에 팔았다. 이 책이 출판된 지 4년 만에 10판까지 나왔으며 총 5만 권이 넘는 책이 인쇄되고 팔렸다.

### 화잇 여사의 유럽 방문과 <각 시대의 대쟁투> 이야기

1885년부터 1887년까지 화잇 여사는 유럽에 있었다. 유럽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적지 방문은 그녀로 하여금 이전 이상 중에 두 번 혹은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난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 주었다. 그녀는 사적지 중 여러 곳을 이미 이상 중에 보았음을 깨달았으며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각 시대의 대쟁투>를 유럽의 주요 언어로 출판하는 계획을 논의할 때, 그녀는 이 책을 증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번역을 위한 증보판을 준비하면서 몇몇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더 풍부하고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세상과 교회를 위해 증보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화잇 여사와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쟁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말을 모두 기록한 다섯 권의 책을 출판할 계획을 갖게 되었다. 이 책들은 문서전도자들이 집집 방문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적합할 것이었다. 비록 이 일은 그녀가 생각했

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결코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 이 증보된 <각 시대의 대쟁투>는 출판사를 통해 1888년 출판되었으며 그 반응은 뜨거웠다. 여러 번 재판되었으며 수십만 권이 팔려 나갔다.

1911년에 이르러 인쇄판 면이 많이 남아 <각 시대의 대쟁투>의 활자를 다시 짤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이 마쳐졌을 때, 몇몇 부분이 재판집되었는데, 예를 들어 명확한 인용구에 대한 참조가 첨가되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하였다. 이 모든 것은 저자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 1911년 7월 25일, 화잇 여사는 이 책의 신판을 받고 난 후에 그 내용에 만족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대쟁투를 금이나 은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백성들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쟁투를 쓰는 동안 나는 자주 하나님의 천사의 임재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내가 쓰고 있는 장면들이 밤중의 이상 중에 새롭게 내게 제시되었으므로 그것들이 내 마음에 새롭게 생생하였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판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 서신 56, 1911. (3기별, 123)

1911년에 출판된 <각 시대의 대쟁투>는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책이다.

### 대쟁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부조와 선지자>의 배경

1888년, 재림성도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대쟁투의 마지막 부분을 보다 완벽하게 기술한 후에 화잇 여사의 관심은 또다시 대쟁투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초기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여 *부조와 선지자* (*Patriarches and Prophets*)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 화잇부인은 1890년에 출

판된 이 책을 펴내기 위해 자신의 집인 캘리포니아 힐스버그에 머물렀다. 그 당시 *리뷰 앤드 헤럴드(Review & Herald)*의 편집장이었던 우라야 스미스는 5권의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될 이 책의 서문을 쓰도록 요청받았다. 거기서 그는 엘렌 화잇의 저작물이 나타내고 있는 예언의 은사에 대한 훌륭한 서문을 기록하였다.

### 〈시대의 소망〉

화잇 여사는 항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생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삶을 충분히 기록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비록 그녀는 1870년대에 이 부분에 관해 기록하였고 그 내용이 *예언의 신(The Spirit of Prophecy)*의 1권과 2권 그리고 여러 개의 팸플릿으로 인쇄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의 집필을 마치고 난 후에 그녀는 우리 주님의 생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저서를 기록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그녀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책의 집필이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녀의 서신에 여러 번 언급되었다.

1891년 가을, 그녀가 호주에 갔을 때 오랫동안 희망해 오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책이 곧 준비되기를 기대했으며, 1892년부터 1898년까지 그녀는 많은 시간을 이 책을 기록하는 일에 사용하였다. 〈시대의 소망〉을 준비하면서 보였던 그녀의 열정은 1892년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O. A. 울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엿볼 수 있다.

나는 주님 앞으로 떨면서 걸어갑니다. 나는 대속의 희생의 큰 주제를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글로 표현할지를 모릅니다. 나는 그 주제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을 때의 그 생생한 능력으로 제시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값싼 말로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품위를 낮출까 봐 두려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누가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니까?” 하고 말하면서 내 영혼의 머리를 숙입니다. - 서신 40, 1892. (3기별, 115)

시나 복음성과 같은 세상의 훌륭한 문학 작품은 고통의 모루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화잇 여사의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시대의 소망(The Desire of Ages)>의 어떤 부분은 11개월 동안 그녀의 방에서 극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 하는 와중에 기록된 것이다. 아마도 이 책이 가진 매력의 비밀은 “강단에서든 개인적이든 목소리로든 펜으로든…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다는 사실이다. - 서신 41, 1895. (3기별, 118)

화잇 여사는 <시대의 소망>을 집필하면서,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35년간 이 주제에 대하여 수백 페이지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은 이미 여러 형태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순서대로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조력자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판된 책들과 기사들, 편지들 그리고 원고들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모으도록 지시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새롭게 제시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많은 기사들을 썼다. 이렇게 새롭게 쓰여진 내용들과 이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아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이야기의 순서를 다시 한번 살피고 필요에 따라 두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내용들도 추가하였다.

우리 구주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한 그녀의 기록은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한 권으로 묶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The Desire of Ages)>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은 <산상보훈(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실물교



훈(*Christ's Object Lessons*)), 그리고 <치료봉사(*The Ministry of Healing*)>의 일부분으로 나뉘지게 되었다.

### 대쟁투 총서가 완성됨

비록 대쟁투의 중요한 사건들이 <부조와 선지자>, <시대의 소망>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되긴 했지만, 타락과 최종적인 회복 사이에 진행되는 선악 간의 대쟁투 중 아직 다루지 못한 두 개의 큰 공백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다윗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1세기 교회의 역사였다. 그래서 화잇 여사는 조력자들과 함께 대쟁투 시리즈의 마지막 두 권의 책을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시대의 소망>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수백 페이지의 내용이 이미 여러 책과 잡지 기사를 통해 출판되었다. 또한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들로부터 각 장과 부분에 들어갈 내용들을 뽑아 올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자료들이 화잇 여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1911년 <사도행적(*The Acts of the Apostles*)>은 따뜻한 환영 속에서 출판되었다. <선지자와 왕(*Prophets and Kings*)>은 화잇 여사가 작고한 후에 끝이여 출판되었다.

화잇 여사가 자신에게 계시된 이상의 장면들을 기록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의 확실한 증거들로 인하여 깊은 감명을 받는다. 다섯 권의 대쟁투 시리즈는 분명 성경 이외의 마지막 세대에게 비추는 가장 귀중한 빛을 담고 있다.


## 루시퍼, 대기만자

복음은 인류를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 담긴 의미를 연구할 때 우리는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계속되는 반역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이유와 그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대쟁투의 결말을 보기 전까지 누가 이 타락한 지구에서 구원받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본 성경 연구는 우주적 대쟁투의 흥미로운 사건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자체가 대쟁투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 영감의 교훈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이 사탄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知的) 존재들에게 당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신다. - 부조 338

① 루시퍼가 반역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부조 35~37, 39

 피조물 중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루시퍼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과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 ② 루시퍼는 왜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는가?

☞ 부조 37, 38, 40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시퍼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시퍼는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루시퍼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자신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점점 커져 갔으며, 결국 그의 교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자신도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 ③ 루시퍼는 하나님의 인내를 어떻게 오해했는가? ☞ 부조 39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시퍼를 오

래 참으셨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에 대한 간절한 동정심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멸망의 심연에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오해되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 자신의 우월성의 증거로 생각하고, 우주의 왕께서 곧 자기의 요구 조건에 따르실 징후라고 가리켰다. 그는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굳게 선다면 저희가 요구한 바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④ 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즉시 멸하지 않으셨는가? ⇨ 부조 41, 42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위는 너무도 신비에 싸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는 사탄이 주장하는 것의 참본질과 의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즉시 루시퍼를 멸하셨다면, 그의 주장은 영원한 의문으로 남게 될 것이며, 온 우주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탄의 참성질과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심으로 온 우주 앞에 하나님 정부의 공의로움과 율법의 완전함을 밝히 드러내 고자 하셨다.

⑤ 루시퍼는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비난하였는가?

⇨ 부조 42, 69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엎으려고 하였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 영감의 교훈

“하나님은 가혹하고, 엄격하며, 독단적인 분으로 표현되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하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사탄은 자신의 품성에 나타난 속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품성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 *Sings of the Times*, 1890년 1월 20일

- ⑥ 아담과 하와를 반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부조 54, 55

 사탄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선악과를 금한 것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바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7**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 부조 64, 66

**📖**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사탄의 지배 아래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탄 사이의 전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이며, 인류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최초의 부모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을 하다가 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8**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부조 68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율법의 완전함을 증명하고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하길 원하셨다.

### 영감의 교훈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을 구속하는 것 외에 더 큰 목적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 하나님 정부의 은혜가 온 우주 앞에 명백히 드러나며, 사탄의 고소가 틀렸음이 증명되고, 죄의 속성과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며, 율법의 영원성이 온전히 입증될 것이다.” – *Signs of the Times*, 1914년 12월 22일


### ⑨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온 우주 거민들 앞에 분명히 드러났는가?

☞ 부조 69, 70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온 우주는 그분께서 말구유에서 갈보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세력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사탄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들은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풀어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며, 그분의 품성은 의롭고 자비로우며, 하나님의 정부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⑩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 부조 70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다면 인류는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율법은 결코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증거 하였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인 공의와 사랑을 온 우주 앞에 명백히 드러내 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





## 생각해 볼 문제

- 당신은 항상 웃고 친절하며 절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로봇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만일 사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법을 지킬 수 있지만, 피조물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율법주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자.


## 대쟁투가 지구에서 계속됨 - 1

하늘에서 시작된 루시퍼의 반역은 새롭게 창조된 지구로 옮겨졌다. 아담과 하와는 대기만자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 결과 죄가 이 땅에 들어 오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 주실 것이었다.

## 영감의 교훈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계명을 존중함으로써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는 한 백성을 이 땅 위에 두실 것이다. 그분의 계명들은 가혹한 것이 아니며 속박의 멍에가 아니다.” - Review and Herald, 1885년 8월 25일

- ①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두 무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부조 72, 73


 아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리를 대표하는 반면, 가인은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무리를 나타낸다. 먼저 가인으로 대표되는 부류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려고 하였다. 이런 자들은 부분적인 순종만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 가장 중요한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 버렸다. 반대로 아벨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정결케 하는 피를 통하여 속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②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었는가? **부조 81**

 하나님께 충성해 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였으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그 법을 무시하였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였다. 특히나 그들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데 몰두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람이 만든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

③ 에녹의 삶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부조 88, 89**


 에녹의 삶을 통해 나타난 교훈은 약속된 구속주를 통하여 불사불멸의 생명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안겨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 주셨다. 사람들은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에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승천은,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과 불멸의 생명을 상급으로 받고 범법자는 정죄와 재앙과 죽음의 판결

을 받는다는 장래에 관한 그의 예언이 진리라는 증거였다.

또한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계 14:3)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홍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죄가 넘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녹과 같이 마음의 순결과 그분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이런 자들은 예녹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승천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승천할 것이다.

#### ④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덮고 있던 영적 암흑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부조 91

 노아 시대의 영적 암흑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사람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된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최악 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전락되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은 더럽혀졌다.

#### 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믿음과 행함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하였는가?



☞ 부조 95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 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소유했던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에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그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이처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방주 짓는 일에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났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 영감의 교훈


때가 이르러니, 여호와와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살전 5:2, 3)할 것이다. - 쟁투 38

 6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손의 계보를 계승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부조 125


 바벨에서 흠어진 후 또다시 우상숭배가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아브라

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서 자랐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신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셨다. 이러한 지식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대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⑦ 아브라함을 수많은 고난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 부조 129, 13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시련은 그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본은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의 큰 유익과 힘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⑧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 부조 153, 154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다양한 핑계들을 생각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핑계의 말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

정과 애착도 우리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삭이 죽으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았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⑨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부조 180

 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였다. 그 결과 그가 얻게 된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약속을 성취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큰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

⑩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꾼 것은 무엇이었는가?** ☞ 부조 213, 214

 요셉의 생각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또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 생각해 볼 문제

-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시련을 통해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을 얻은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자.
-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바라봄의 법칙’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TV, 영화, 주변 사람들 등)
- 시련의 때에 나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꾸어 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도들의 교훈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자.




## 대쟁투가 지구에서 계속됨 - 2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통해 이 땅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남녀들을 선택해 오셨다.

### 영감의 교훈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계명을 존중함으로써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는 한 백성을 이 땅 위에 두실 것이다. 그분의 계명들은 가혹한 것이 아니며 속박의 멍에가 아니다.” – Review and Herald, 1885년 8월 25일

- ① 사탄이 천사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오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임수는 무엇인가? ☞ 부조 331


 사탄은 타락한 인간에게 반역을 선동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율법을 범하도록 방임해 두시는 불의한 분으로 나타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인간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아셨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그들로 비참함과 죽음을 겪게 하셨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사탄은 선택의 자유를 통해 나타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거짓으로 고소하였으며, 사람들은 유혹자의 말을 귀담아듣고, 사탄의 파괴적 능력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께 불평하였다.

②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들이나 인간들이 죄짓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 부조 331, 332

 선택의 자유가 없는 존재는 단순한 자동 인형과도 같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분은 자발적인 경배와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결코 피조물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하심으로써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셨다.

③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법과 품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 부조 333, 334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교의 우상숭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에 이교의 풍속과 유전을 섞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품성과 율법을 분명히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시내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거기서 당신의 친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④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대하여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였는가? ☞ 부조 371, 372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 24:7)라고 선언했지만, 불과 몇 주일 지나지 않아서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 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부조 372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스 20:11; 레 18:5).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26). 하지만 “새 언약”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축복이다.

### ⑥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은 하늘에서 벌어진 루시퍼의 반역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부조 403

 고라의 반역은 사탄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었다. 루시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

려고 기도케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 왔다. 그러므로 루시퍼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여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 시기와 불신과 반역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했다.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였다.

⑦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설교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를 무엇이라고 강조했는가? ☞ 부조 523


☞ 여호수아는 고별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느끼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했다. 여호수아는 강제로가 아니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종교의 기초이다. 보상에 대한 희망이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 오직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즉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참신앙의 기초요,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사실을 강조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도록 하였다.




## 영감의 교훈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생애에서 구현될 때,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지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주에까지 그분의 나라의 원칙들을 나타내야 한다. - 6중언 9, 11~13

- ⑧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었는가? ☞ 선지 47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솔로몬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 나라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제 자연의 현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저희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었다.


- ⑨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했던 솔로몬은 어떤 잘못들을 범했는가? ☞ 선지 51~55


 그는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얻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였다. 이 교도의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고, 그 결과 여러

이교의 신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동맹과 상업상 거래가 세상의 명성과 영광과 부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품성이 라는 정금은 점점 더 빛을 잃게 되었다.

### 영감의 교훈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에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해칠 위험이 따랐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 생애에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이 진리로 성화되지 아니하는 한 번영은 확실히 그들을 오만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 선지 60

10 솔로몬 이후 계속되는 배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가?  선지 108

 솔로몬에서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통치는 큰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와 충성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연달아 일어난 통치자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로 더욱 깊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을지라도 그분은 뒤로 물러간 당신의 백성에게 연달아 기별을 보내셨다. 나라가 분열된 후의 세월 동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고 호세아와 아모스와 오바댜의 부드러운 호소를 나라 안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에 대한 훌륭한 증인들을 보내지 않고 버려

둔 적은 결코 없었다. 이처럼 최악의 암흑 시대 동안에도 거룩하신 통치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상숭배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흠 없이 살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상당수의 남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 계수되었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되어 있었다.



### 생각해 볼 문제

- 나는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는가?
-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을 강제한 적은 없는가? (자녀나 이웃들에게) 믿음을 '강제'하는 것과 '강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영적 교만이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피해가 되기도 함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약속하심으로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들은 대쟁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대표한다.

### 영감의 교훈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분이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 실물 333

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 선지 153

 산 위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복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불에 삼키우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욕을 돌렸는지를 보았으며,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까지 우로를 거두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깨달았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보다 뛰


어나시다는 것을 가까이 인정하게 만들었다.

② 엘리야의 심령과 기별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

☞ 선지 187, 188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왕상 18:21)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2, 4, 5)라는 기별이 전해질 것이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찌끼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겉치레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가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에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③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에 빠진 세상과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선지 259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충실한 봉사로 백성들에게 다가갔고, 위기의 때에는 왕들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이교에서 돌아와 참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렸다. 이처럼 하나



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의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 ④ 니스웨에서의 요나의 경험은 사탄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여 주는가? ⇨ 선지 270, 271

📖 니스웨는 이방 도시였으며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에 빠진 니스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아끼셨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떨게 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였다. 비록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움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탄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다.

- 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삶과 그 시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 선지 386, 387

📖 하박국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무서운 형벌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취될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믿음으로 장래에 일어날 험악한 광경 저편을 내다보며,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귀중한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하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 ⑥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품성을 보게 되는가?

☞ 선지 408

📖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활과 기별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냈다. 그는 배도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대변자로 섰다. 그가 전한 기별은 다윗의 집의 몰락과 솔로몬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의 파멸이었다. 하지만 온 나라가 신속히 휘말려 들고 있던 전반적인 파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현재의 비참한 광경 너머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땅에서 석방되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삶과 기별을 통해 나타난 회개와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의의 원칙을 순종할 때 이르러 올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사탄의 참소를 반박하고자 하신다. 이 원칙들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생애에 나타나야 하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모든 기관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 실물 296, 297

## ⑦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적인 사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선지 545

 우리는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 미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련의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그들을 감쌀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⑧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천사에 관한 스가라의 계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선지 586~589

 사단은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려고 설 것이다.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 등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담시키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한 각 영혼들을 위해 열렬히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가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다.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⑨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하나님께서는 대쟁투에 관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 선지 713, 714

☞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목적, 즉 대쟁투에 관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요, 그들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은 교회 역사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7)라는 기별이 세계 각처에 전파될 것이다. 이로써 대쟁투에 관한 진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인류는 대쟁투의 실상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하신 일을 교회를 통해 마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선지 716

☞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사탄은 암흑과 오류와 기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갈 것이다. 바로 이때, 그 어둠을 깨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들은 빛을 가진 자들로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 16)고 말씀하셨다. 이 사명이 교회를 통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취 나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다.



## 생각해 볼 문제

-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적이 있는가? 그때 어느 편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와 세상의 의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교회의 사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계 13:8)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기본 개념 중 하나는 복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 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된 것이다.

###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인류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높이 드러내셨다. ...그분의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일이 성취되었으며, 아버지의 품성이 온 인류에게 드러났다고 말씀하셨다. - 시조, 1980, 1, 20.

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성취된 위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 소망 19, 20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의 빛은 단순히 이 땅에 거하는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온 우주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②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탄을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소망 22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져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은 무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거짓된 품성은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났고, 이러한 대조는 온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③ 인류의 구세주요, 교사요, 모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 소망 37, 38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우리의 의지를 지배해 온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품성을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재창조하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

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이다.

### 영감의 교훈


위대한 교사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교훈과 모본에 있어서 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사람에게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오심으로 인간이 그 자신의 결함 있는 판단을 따라가는 것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다. 그의 생애에는 죄가 없다. 그의 평생의 순종은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책망이 된다. - 3기별 135

- ④ 예수님께서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 소망 49, 131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인류가 4천 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의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와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 온 결과를 받으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 주셨다. 만일 그분이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에 굴복했다라면, 하늘 정부의 기초는 흔들리게 될 것이며 인류의 구원도 물거품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 ⑤ 침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

## 을 표상하는가? ☞ 소망 101


 침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세상은 방종에 빠져 있다. 오류와 우화가 많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울무는 증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사명이다.


### ⑥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의 어떤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 소망 114, 115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 하게 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이 지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의 임금으로 추대하였으며, 이 땅을 자신의 나라로 삼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죄 없는 삶을 통해 사탄이 인류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또한 장차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 ⑦ 우리 주님의 광야에서의 경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소망 121

 사탄은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며 놓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들을 공격하여 우리로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한 확실한 보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탄을 대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⑧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시도록 그분께 힘을 준 것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소망 123

 예수께서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사탄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⑨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와 더불어 성경이 제시하는 “품성의 완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소망 123




---

 예수님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하심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신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에 대항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 10 믿음과 추측의 차이는 무엇인가? 소망 126

---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끈다. 하지만 추측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방종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 결국 추측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인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 영감의 교훈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예수는 모든 유혹받는 영혼이 저항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 즉 자신을 영감의 기록에 위탁하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셨다.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며 그를 에워싸는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되어 있다.  
- 1원고, 1892, 리뷰 앤드 헤럴드, 1976. 6. 17.



## 생각해 볼 문제

-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 내가 가장 닮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가?
-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낙담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 냈는가?
-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승리의 삶을 위한 자신의 결심을 나누어 보자.
-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서는 좋아하지만 자신의 모본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어하는가?

## 예수님께서 삶과 말씀으로 남녀들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며 사탄의 잘못을 증명하심 - 1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요 14:9). 이것이 바로 모든 신학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대쟁투의 핵심은 세상이 창조되기 오래전, 사탄이 반역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비난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오셨다. 그분은 사탄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시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다운” 방법은 인간이 되셔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 영감의 교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거짓을 쓸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연민 그리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오직 사랑의 행위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불신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본과 사랑과 진리의 행동을 통한 증언을 부인할 수 없었다.

-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39

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 소망 139

☞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요일 4:7)다.

② 박식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침례 요한이 지적한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 소망 138


☞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 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정치적 왕이었다. 그들은 이런 왕이 온다면 얼마든지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이 지적한 분은 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세상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왕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말았다.

③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과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명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소망 161


☞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창조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셨다. 사람의 마음의 죄를 제거하고, 어두워진 마음에 새 빛을 전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을 드러내 준다.

④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죄의 용서를 넘어 복음의 어떤 궁극적 목적을 듣게 되는가? ☞ 소망 17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단순한 죄의 용서나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이 깨끗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⑤ 모세가 든 구리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이 무엇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 소망 175, 176

 뱀에게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구리뱀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고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였




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과학적 증거나 이성적 논리가 아니다. 오직 “처다보면 살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 영감의 교훈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 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밑으 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 정로 27


- ⑥ 예수님은 아픔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소망 189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지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장소로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심 산을 예배의 장소로 선택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정신이 새롭게 되어 예배자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즐거이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이 곧 참된 예배이다.

⑦ 침례 요한의 지친 마음을 사로잡은 지독한 의심은 무엇이었으며, 극심한 우울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 소망 214~217, 220

 요한의 제자들은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 의심하였고, 그러한 의심의 말은 요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수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 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등에 대한 모든 기억이 나서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를…전파하여”(사 61:1, 2)라는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확신하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몰아냈다.


## 영감의 교훈



사탄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엄격하며, 독단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의 고통을 오히려 즐거워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사악한 사탄의 품성이 마치 하나님의 품성인 것처럼 나타났다. - *Signs of the Times*, 1890, 1, 20.


- ⑧ 안식일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 소망 283, 284

 안식일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날이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관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날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도 시대의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장로의 유전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시는 폭군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그릇된 관념을 없애고, 안식일의 참의미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왜 그분은 연약한 인간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는가? ☞ 소망 296, 297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이유와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와 가까이하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그와 동일한 능력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거 한다. 그들은 의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대신 다가가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소망 311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곧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이 일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대비책을 세우셨다.



## 생각해 볼 문제

-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 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자.
-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예수님께서 삶과 말씀으로 남녀들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며 사탄의 잘못을 증명하심 - 2


예수님의 삶을 주의 깊게 살필수록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교적 재능과 모든 사회 집단들과 융화되는 능력 그리고 과거의 평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삼으시는 묘한 기술에 놀라게 된다. 많은 사람, 심지어 그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그분을 오해했다. 고결함은 외로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을 그분은 알고 계셨다.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인내심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동안, 오랜 경쟁자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지치게 만들도록 부추겼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역에 들어오셔서 죄로 인해 심신이 망가진 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분과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 영감의 교훈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다. 그의 생애에는 죄가 없다. 그의 평생의 순종은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책망이 된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순종과 전혀 다른 것으로 제쳐 놓아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 3기별 135



- ① 진리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취었다(요 1:9)는 원리는 바리새인들에서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 소망 322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받았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진리의 빛을 거절하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비친 진리의 빛을 고의로 거절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는 끊어지게 되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을 보내시지만, 그 빛을 거절하면 오히려 그들의 눈은 멀게 되고 마음은 강박하여진다.


 ②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망 322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마침내 그 영혼은 더 이상 빛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③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소망 324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전쟁터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 하나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면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하게 되며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4**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소망 330, 331**

 많은 사람이 복음을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구속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람은 죄 된 생각과 습관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만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가납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다.

⑤ 거라사의 두 광인 이야기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대쟁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소망 341

☞ 무덤에서 살면서 사귀에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육욕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준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주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탄에게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탄은 그럴듯한 유혹을 통하여 사람들을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하게 한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을 때 사귀들이 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품성은 고상하고 고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의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⑥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으로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는 “살아 있는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소망 347

☞ 예수께서는 자신의 옷깃에 손을 댄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녀를 치유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옷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님과의 접촉 때문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결코 심령을 치유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 영감의 교훈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측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탄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참된 믿음은 성령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 소망 126

⑦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왜 그들은 그 증거를 버리고 여전히 더 많은 증거를 찾았는가?

☞ 소망 386, 387

☞ 비록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가 날마다 나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다. 설혹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할 것이었다. 불신은 언제든지 의심에 대한 변명을 찾을 것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논박할 것이다. 이처럼 성령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었다. 그 편견은 저희 마음의 강박함에 그 뿌리가 있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그들의 마음속에 반항심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던 정신이 예수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예수의 정신을 거절하고 오히려 오랫동안 품어 왔던 교만과 가식의 정신을 선택하였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⑧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가? ☞ 소망 412


☞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신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고백은 결코 베드로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으시다. 이날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⑨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는가? ☞ 소망 455

☞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이는 바 되어야 하며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만약 진리가 오로지 이성에만 제시될 수 있다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

이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통하여 받아들여진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⑩ 진리를 받아들이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망 466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한 개인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감화 아래 누구를 섬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죄를 극복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필요를 크게 느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마침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 생각해 볼 문제

- 나는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 성령의 9가지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 가장 소유하고 싶은 품성의 열매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자.
-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나는 죄에서 해방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주간 / 하지만 우리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주간인가! - 1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갈보리에 오르시기 전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는 다른 세상에 관해 기록한 따분한 소설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그분은 겨우 서른세 살에 유명한 선생이요 의사가 되셨지만, 풍요로운 삶을 사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삼십삼 년 동안 그분의 사역을 마치셨다(요 17:4). 앞부분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엘렌 화잇은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이해를 넘어 예수의 죽음에 관한 웅장한 주제들을 조명한다.


### 영감의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있겠는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지옥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으며, 그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심판의 때에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 The Youth's Instructor, 1893년 3월 2일

- 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품성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소망 604**


---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성이 결정된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인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했다. 그분은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그 후에는 사람들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믿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들로 하여금 상호 간에 별 관심없이 살도록 이끌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과 그들의 율법의 요구를 엄격하게 지킴을 크게 자랑하였으나 그들에게 율법의 참정신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비는 없었다. 그 결과 저희 마음은 다른 사람의 궁핍과 고통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

 **②**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분명한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은혜의 때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도록 세상을 속일 것인가?

 **소망 636**


---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탄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돌릴 것이다.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도록 할 것이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쾌락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마쳐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 영감의 교훈


때가 이르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 쟁투 38


- ③ 최후의 심판의 시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 소망 637, 638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이 최후의 심판의 시간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을 섬긴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면,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④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실 때, 그분을 괴롭게 만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소망 643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치러야 할 큰 희생이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오신 자들의 망은과 잔인성을 아셨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겁게 그분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 것은 바로 대다수의 사람이 그분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배반하여 그분을 버릴 것임을 아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큰 희생과 더불어 대다수 사람에게 그것이 헛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이 두 가지가 그분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다.

⑤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셨는가?  소망 664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한다. 제자들의 신앙은 이러한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고 거기에 믿음의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길 원하셨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이 왜 그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는가? ☞ 소망 669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이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는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었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때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⑦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는가? ☞ 소망 676

 포도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수액을 빨아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뿌리는 나무줄기를 통해 가장 먼 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




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본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보일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린바 되지 않을 것이다.


⑧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랑(헬라어: 아가페)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소망 677, 678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이란 곧 예수님의 자아 희생적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뜻한다. 이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며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이다.

⑨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모양의 죄라도 그것은 죄인으로부터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어떻게 보여 주셨는가? ☞ 소망 685, 686

 온 우주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린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겿세마네의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지셔야만 했으며, 그 순간 하나님의 불드시는 임재의 빛은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것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온 우주는 이 모습을 통해 그 어떤 모양의 죄라도 그것은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10 제자들이 겿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과 그들 자신은 각각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는가? ☞ **소망 687, 688**

 겿세마네의 예수님은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로 오셨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 자신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길 원하셨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곳곳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위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 역시 장차 그들에게 닥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을 것이며, 결국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었으며, 제자들은 곧 있을 시험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다.



## 생각해 볼 문제

-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고 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비록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간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자.
-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로를 얻은 적이 있는가? 또는 나의 기도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준 경험이 있는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주간 /  
 하지만 우리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주간인가! -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조롱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셨다. 그분은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며 우리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 영감의 교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놀라운 계시는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공급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들은 모두 인간 대리자를 향상시키고, 깨끗게 하시며, 고상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 Manuscript Release 7권, 274

① 사탄의 품성은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가?


☞ 소망 700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과시해 보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압도하는 의지의 섬광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사조를 변화시켜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이 자신의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들의 야망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이


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기대는 사탄의 품성과 매우 흡사하였다. 사탄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에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여 창조주만이 누릴 수 있는 최상권을 탐냈으며, 이러한 야망은 그의 주위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결국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진 유대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참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

## ②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 겪을 둘째 사망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소망 743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다. 그분은 타락한 자의 범죄에 대한 당신의 분노를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얻게 될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최종적 형벌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 ③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심장을 찢누른 것은 무엇이었는가? ☞ 소망 753, 772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그의 옆구리를 찢른 창도,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그분은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과 그분


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떨게 만들었다. 그분은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찢었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 영감의 교훈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원의 경륜은 어린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을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에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 *Signs of the Times*, 1889년 12월 30일


④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소망 758, 761**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 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




긴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가면은 벗겨지고 그의 본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그 결과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 ⑤ 왜 사탄은 십자가에서 멸망되지 않았는가? ☞ 소망 761

 십자가에서 사탄의 거짓과 죄 된 품성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파멸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⑥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비난하는 사탄의 입을 어떻게 막았는가? ☞ 소망 762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조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법이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대속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조화되어 나타났으며, 사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⑦ 품성의 변화는 마지막 세대의 끝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가?

☞ 소망 763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땅으로 내려와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그분의 품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을 선택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법을 선택한 자들은 그 속에 담겨진 사탄의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마지막 세대의 끝에는 각 사람의 모든 품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⑧ 모든 것을 주시는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 소망 799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고는 자


신이 부활하신 예수이심을 보여 주셨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가르치셨다. 그들은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 성경의 증거들 위에 세워져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 주셨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확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⑨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속죄의 어떤 국면을 마치셨으며, 또 어떤 국면을 시작하셨는가? ☞ 소망 819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희생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첫 번째 국면이다. 그 후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두 번째 국면, 즉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중재 사역에 들어가실 것이었다.

⑩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품성은 그들의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소망 827

---

 비록 복음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말로만으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고 그들의 생애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은 더욱 힘 있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롬 8:29)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힘 있게 전해질 것이며, 그것을 들은 모든 자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 생각해 볼 문제

- 너무도 자주 듣고 익히 알아 온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 적이 있는가?
- 나는 품성 변화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또 그 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과연 내 신앙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의 경험이나 신앙 습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
- '가족을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복음과 내가 보여 주는 삶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 초대 교회가 말하는 대쟁투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

대쟁투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비록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은 마침내 사탄의 본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원리와 품성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직 온 땅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증명되어야 할 사탄의 잘못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지키실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사탄은 쉽게 말할 것이다. 대쟁투의 쟁점은 (1)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와 (2) 죄인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극복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신약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 영감의 교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죽으신 것은 그분이 그들에게 위탁하신 귀중한 보물을 교회의 유산으로 남겨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을 소중한 가르침의 수탁자로 삼으심으로써 오류나 사람의 전통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교회에 진리가 전달되도록 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요 의의 태양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 *Signs of the Times*, 1891년 11월 16일




① 교회가 조직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 **행적 9**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엡 3:10, 새번역)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②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무대가 되었는가? ☞ **행적 12**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비록 그들은 박해와 투쟁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교회를 통하여 각 시대에 전달되었으며 진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이로써 세상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며, 성도들의 변화된 심령은 복음을 더욱 힘 있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


③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 **행적 14**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에 세상 열국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롬 1:21)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잇은 열국에게 다시 한번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④ 그리스도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두 근원은 무엇인가? ⇨ **행적 18**


 예수님은 복음 사업을 위하여 제자들을 구별하셨다. 비록 그들은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능력의 근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힘 있게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이며,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었다.

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사람의 이성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성실히 증거 하는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 **행적 31, 37**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산 지식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였다.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하여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마음에 역사하셨으며,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⑥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가?  **행적 62**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굴복하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렸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마음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다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지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⑦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신약 교회에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었는가?

☞ **행적 73, 74**

 초대 교회는 교인의 수가 신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개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면 교회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으로부터 어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다. 그것은 그들로 허위와 위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회에 주신 경고였다. 이 심판으로 교회의 신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⑧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으며,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 **행적 111**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 영감의 교훈

만일 재림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 1기별 67, 68.

- ⑨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외쳤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주제야말로 오늘날 목사들이 강조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 **행적 157**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은 안디옥이었다. 그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모두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신 일들을 나누기를 좋아하였다. 그들의 입술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인내와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그들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되었다.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화와 묵상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설교자들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0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 **행적 475**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거룩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품성 건설의 기초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원칙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속에 나타난 하늘의 지혜를 찾는다면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 실물 69



## 생각해 볼 문제

-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반대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나는 하루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고 있는가? 혹시 주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 초대교회의 배교

대쟁투 시리즈의 마지막 책은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서전도자들을 통하여 사람이 사는 땅이면 어디나 전해져 왔다.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진리의 빛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힘 있게 더 널리 전파되었다. 이와 같은 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대쟁투의 웅장한 대단원을 묘사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우주의 최후에 대한 확언은 이미 주어졌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그렇다. 사탄뿐 아니라 그에게 기만당한 모든 이들까지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옳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거대한 하늘 찬양대는 대쟁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노래할까? 들어 보라. 당신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 영감의 교훈

(사탄은) 조물주를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항상 질투의 눈으로 주목하는 분으로 묘사한다. 예수께서 인류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몽매한 오해를 없애하시기 위함이었다. - 정로 11


<각 시대의 대쟁투>의 서문을 꼭 읽어 보라. 엘렌 화잇은 계시와 영감의 성서적 접근을 설명하기 위해 그 글을 썼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필자들이지 그분의 필족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 ①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호의적 관심을 얻기 위해 보이신 끝없는 인내는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보여 주는가? ⇨ **쟁투 20, 22**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놓아 주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비록 그분에게 선을 악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보답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참아 내셨다. 자신이 베푼 은혜가 완고한 마음의 벽에 부딪혀 비난과 조롱으로 되돌아올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다시 공허의 조수가 되어 그들을 향해 더 힘 있게 나아갔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죄의 기록을 보셨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갈망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거절하고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다.

- ② 사탄의 품성은 예수님을 죽인 후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어떻게 반사되었

## 는가? ☞ **쟁투 28, 29**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유대인의 완고한 고집을 더욱 크게 해 줄 따름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비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성을 떠나서 충동과 맹목적인 걱정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가정에, 백성들 사이에,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살육이 편만하였다. 결국 사탄은 그 나라의 수령이 되었고, 국가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은 모두 그에게 지배되었다. 그 결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사탄의 품성이 그대로 반사되었다.

**③**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때 “성령께서 악인을 완전히 떠나시는” 두려운 순간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쟁투 36, 37**

 비록 이 땅에 죄가 편만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계신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견제는 제거된다. 하나님의 신은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서 마침내 떠나신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의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고 사탄의 원한과 적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보여 주는 확실한 예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들려온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죄인이 받을 분명한 형벌에 대하여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언을 주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④ 교회의 효율성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계획은 무엇인가? ☞ 장투 42

☞ 처음에 사탄은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박해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졌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사탄은 박해를 그치고 교회를 파괴할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미끼를 통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 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지만 죄에 대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된 타협의 정신은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⑤ 하나님의 신실한 추종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통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 장투 47, 48

☞ 사람들은 악인의 손에 의인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며 의아해한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악한 자들은 번영케 하시면서 선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려고까지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참본성을 드러내시며 이것은 결국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의인들은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 더욱 정결케 될 것이며, 그들의 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신앙과 경건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최악의 잔

이 찰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⑥ 사탄은 어떤 전략을 통해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였는가?  
☞ **쟁투 51, 52**


☞ 사탄은 성경이야말로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세에 대항하게 해 줄 능력임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공격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통하여 사탄을 이길 수 있음을 사탄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탄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았다. 그 결과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 오직 신부들과 주교들만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오류와 섞어서 가르쳤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요,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따르도록 하였다.

⑦ 교황 지상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에도 진리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 **쟁투 61-63**


☞ 로마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

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콜롬바와 왈덴스인들이다. 콜롬바와 그의 동역자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아이오나 섬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선교사들을 파견하였으며, 왈덴스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깊은 산골짜기나 험준한 산속으로 피해 거거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은 영적 암흑 시기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게로 전달되었다.

⑧ 무엇이 루터를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로 만들었는가? ☞ **쟁투 120**

 루터가 살던 시대는 로마교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영적 암흑기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이다. 그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어떤 교황의 권위나 협박도 그의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없었다. 또한 그는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그로 하여금 성경이 무시되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을 밟고 서 있는 그 암흑의 시기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시대적 인물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셨다.


⑨ 루터 편에 섰던 제후들이 스파이얼스 회의에서 타협하기를 거절했던 기본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 **쟁투 202~204**

 루터 편에 섰던 제후들은 세상 통치자들이 가진 권위 이상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교리와 요구보다 성경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의회의

결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카알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였다. 제후들은 다음과 같은 항의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차 반포될 칙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위배 되는 점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욱 확실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일한 진리이며 그것은 참으로 모든 교리와 행위의 확실한 표준으로서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 위에 서는 사람은 어떠한 음부의 세력과 장차 없어질 사람의 영화에 대하여서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10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에 동참한 자들을 어떻게 박해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쟁투 226**

 많은 사람이 잔인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화형을 집행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 화력을 약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승리자들처럼 죽었다. 그들의 지조는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평화에는 그늘이 없었다. 박해자들은 그들의 확고부동한 태도에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느꼈다.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 올린 장작더미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리의 힘을 선포하는 훌륭한 설교단이 되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극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등은 많은 사람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웅변으로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





## 생각해 볼 문제


-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핍박당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 비록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성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차가운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령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원칙 없는 감상주의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과 믿음의 원칙을 타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하나님께서 대쟁투를 마치실 때 교회는 마침내 사탄의 잘못을 증명함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릴 때, 종교에 대한 놀라운 각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진리를 여러 사람을 통해 드러내 보이셨다.


### ① 프로테스탄트를 위한 윌리엄 틴데일의 가장 큰 기여는 무엇인가?


☞ 쟁투 245~247


 틴데일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영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 백성들에게 열어 주고 있는 동안 틴데일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아 영국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 처음 그는 박해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 런던으로 갔다. 그는 얼마 동안 그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그는 로마교도들의 폭동으로 인해 결국 독일로 피신하여 영어 신약 성경의 인쇄를 시작하였다. 두 번이나 그의 사업은 정지를 당하였으나 이 도시에서 인쇄할 수 없으면 저 도시로 가고, 저 도시에서 인쇄할 수 없으면 또 다른 도시로 갔다. 마침내 그는 보름스에서 더 이상의 방해 받지 않고 그의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오래지 않아 3천 부의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고 같은 해에 다시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

### ② 웨슬리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 쟁투 262~264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율법과 복음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가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복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을 더욱 정확히 성취시키도록 한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는 그와 같은 요구를 스스로 행할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③ 프랑스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사탄의 능력을 보여 주는 어떤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쟁투 269~271**


 첫 번째 현상은 무신론이다. 프랑스는 공공연하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프랑스 의회는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비록 나라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프랑스와 같이 의회에서 무신론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프랑스만이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들었다. 둘째로 프랑스는 음란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들은 결혼제도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했으며 사람들은 온통 동물적 욕정으로 가득 찼다. 이 모습은 소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켰던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것이 사탄의 능력과 그의 품성을 보여 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이다.

④ 세상의 종말은 노아의 시대에 나타난 종말과 어떻게 닮았는가?

☞ **쟁투 338, 339**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한 사람을 보내셨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기별이 120년간 그들의 고막을 울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허황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만일 노아의 기별이 참이라면 어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그의 경고를 거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며,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안일한 생각은 곧 헛된 망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⑤ **요한의 이상 가운데 나타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 쟁투 355, 356**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6). 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 준다. 구원의 기별은 각 시대마다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이 아닐 수 없다. 이 기별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에 응답하여 나아올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에 동참할 것이다. 또한 이 기별

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전파된다는 것은 이 운동이 신속하게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요, 사명인 것이다.

- ⑥ 왜 하나님께서는 밀러가 전한 기별의 착오를 덮어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그림 전체를 보지 못하게 덮으심으로 극심한 실망을 겪게 하신 것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 **쟁투 373, 374**


 밀러 운동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의 날을 기다렸다. 그들은 세속적 사업을 그치고 오직 재림에만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들이 기대한 날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실망하여 주님을 떠났다. 이 일로 인해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들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들은 대실망 후 그리스도를 떠났으며 동시에 참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무리에 가담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 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여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 영감의 교훈

초대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려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 실망은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오해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실망을 당함으로 그들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곳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었는가?  
- 쟁투 351~354

### ⑦ 성소 봉사의 새로운 이해는 어떻게 1844년의 대실망과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사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는가?

☞ 쟁투 423, 424

 밀러 운동에 가담한 자들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성소 봉사의 새로운 이해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대체사장인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의 시작,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착오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이처럼 성소 문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줌으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 주었다.

⑧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는 이 일은 조사 심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쟁투 428

☞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 예복에 관한 비유는 조사 심판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 비유를 보면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 조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곧 어린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 심판은 성도들의 품성을 조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품성을 갖기 위해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⑨ 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 쟁투 437, 438

☞ 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7)는 기별로 시작된다. 이것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 일치하는 기별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




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0, 11)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 경배의 기초가 된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계 14:7)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계 14:12)는 세 천사의 기별은 인류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실 것과 그곳에서 거룩하고 건전하며 행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자들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히 3:19)다. 그들의 마음이 불평과 반역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없으셨다. - 1기별 68

### 10 진정한 신앙 부흥과 그릇된 신앙 부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쟁투 461~463**

 진정한 신앙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살기 위하여 일어

난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사는 대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삶의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하지만 그릇된 신앙 부흥은 이와는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거짓 신앙 부흥도 광범위하게 흥미가 고조되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고백하며 교회에 나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참된 영적 생명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심령은 일시적으로 타올랐다가 오래지 않아 곧 꺼져 버릴 것이며, 그들을 둘러싼 흑암은 오히려 전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다.



#### 생각해 볼 문제

- 노아의 시대와 같이 불신이 가득하고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각 사람의 품성이 그토록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때 사건들은 대쟁투를 분명하게 보여 주므로 다시는 의심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이번 마지막 장은 대쟁투의 모든 사건이 한곳으로 모아지는 거대한 갈때기와 같다.

### 영감의 교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탄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겨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 쟁투 678

- ① 성소 봉사와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를 이해하는 것이 1844년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왜 중요한가? **쟁투 488, 489**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 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 준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

이 퍼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 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긴요하다.


②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다섯 가지 함정은 무엇인가? ⇨ **쟁투 524, 525**

 첫째로 사탄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이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친다. 그러고는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 자들을 자신의 포로로 만든다. 둘째 함정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이다. 사탄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분의 신격, 선재성에 대하여 돌아서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셋째로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 각 개인에게 오는 일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사람들을 더욱 안일하게 만들고, 구원의 계획을 오해하게 만든다. 넷째로 사탄은 성도들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는 과학자들을 통해 기도가 실제로 응답될 수 없으며, 기도를 통한 그 어떤 이적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을 어길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그분을 자연 법칙 안에 가두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유혹에 빠뜨린 함정은 그들을 회의론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함정에 빠진 자들은 성경을 믿을 만하지 못한 책으로 여기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게 된다.

③ 하나님께서는 대쟁투 중에 있는 남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쟁투 541**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④ 왜 강신술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가장 큰 기만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쟁투 560~562**


 강신술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영혼은 살아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인류의 조상을 죄로 유혹할 때부터 사용되었다. 사탄은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창 3:4, 5)리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써 그의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이러한 거짓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아무리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형벌이 없으며 모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믿게 한다. 그는 이러한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사탄이 놓은 덫에 걸려 신앙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 ⑤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엄청난 차이점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 연합할 것인가?

☞ **쟁투 563, 578, 579**


 오늘날 가톨릭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다. 천주교는 개신교를 향해 융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신교도들도 지금껏 생각해 왔던 것만큼은 가톨릭과 자신들의 신앙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가톨릭이 과거 암흑의 세기 동안에 행한 포악과 모순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한 잔인성은 그 시대의 미개함 때문이었으며 현재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믿는다. 이렇게 해서 로마교와 개신교는 연합하게 될 것이며 이 연합은 결국 일요일을 존중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겠다는 예언의 성취이다.

- ⑥ 마지막 때에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뉴에이지 강신론자들을 하나로 묶는 두 가지 오류는 무엇인가? ☞ **쟁투 588**

 그들을 하나로 묶을 사탄의 두 큰 오류는 바로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이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표가 된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술선하여 강신술과 로마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해 손을 뻗칠 것이다.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강신술. 이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차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⑦ 착하게 살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는 주장은 왜 잘못되었는가?

☞ 쟁투 597, 598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그러므로 착한 삶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또한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이 바르면 생애도 바르지만, 믿음이 그릇되었을 때는 그 삶도 옳바를 수 없다. 옳바른 믿음은 우리를 옳바른 삶으로 이끌 것이며 그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할 것이다.


⑧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기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쟁투 612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 위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큰 능력으로 세상에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미 과거에 인쇄물이나 기별자들을 통해 진리를 전해들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밝히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혈연 관계, 교회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진리이다. 이처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 기관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⑨ 하나님께서는 왜 은혜의 기간 이후에도 사탄으로 하여금 성도들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가? ☞ **쟁투 621**


 성도들이 겪을 고통과 고난의 시기는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 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불은 오히려 그들을 연단하여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연단의 풀무불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는 맑고 깨끗한 정금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들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태워 버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혜의 기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⑩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준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쟁투 622, 623**

 환난의 때에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환란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된 습관을 버릴 뿐만 아니라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

11 사탄이 천 년 동안 받게 될 두려운 형벌은 무엇인가? ☞ 장투 658~660

 그는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곳은 예수님의 재림 후 폐허가 된 지구를 가리키는데, 그곳에는 사탄이 유혹할 그 어떤 자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갔고 악인들은 죽었기 때문이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바로 이곳에서 일천 년간 갇히게 될 것이다. 그가 무저갱에 천 년간 결박당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 여러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 온 기만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천 년간 사탄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볼 것이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탄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 하늘 정부에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 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떨 것이다.

12 이 땅에 있었던 죄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영원히 간직될 기념물은 무엇인가? ☞ 장투 674

 온 우주로 하여금 죄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이 남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의 몸에 남겨진 십자가의 표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벗어 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영원히 남게 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러한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보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 영감의 교훈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鼓動)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 쟁투 678



## 생각해 볼 문제

- 오늘날 사탄은 강신술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 가톨릭은 '모든 종교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가?
-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엘렌 G. 화이트의 대쟁투 시리즈 연구

##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 발행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발행인 김대성 | 편집인 한승식 | 개발자 김성진 | 디자인 이혜연, 배혜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 홈페이지 <http://mtri.or.kr> | 전자우편 [hans417@hanmail.net](mailto:hans417@hanmail.net)

대표전화 (02)3299-5264 | 정가 3,000원

구입문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Copyright © 2015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 재림성도 양육단계 및 교재

## 1. 신자되기 (Making Adventist)



## 2. 제자되기 (Training as Disciple)



## 3. 일꾼되기 (Serving as Servant)



## 운영 지침서



엘렌 G. 화잇의 대쟁투 시리즈 연구

##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



이 교재는 재림 성도들이 대쟁투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오늘날 각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화잇 여사가 저술한 5권의 대쟁투 시리즈(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대쟁투 시리즈를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각 시대마다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대쟁투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남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4과 : 죄의 시작

5~7과 :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대쟁투

8~9과 :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대쟁투

10~13과 : 전쟁이 끝남